



인터뷰

김영태 코레일유통 사장

“6000억 매출목표, 대국민 서비스의 증명 타 교통수단 연계… ‘종합 모빌리티’ 첫 발”

지난 7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본사 대표실에는 눈길을 끄는 글귀가 있었다.

‘코레일유통 돌파 6000억.’

칠판에 붓글씨로 거침없이 쓴 표어를 기자는 한참 쳐다봤다. 언론에선 종종 공기업의 이윤추구를 두고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담조로 붙인 표어인가 했더니 이날 만난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는 진지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6000억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증명’이었다.

“매출이라는 건 그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기업의 매출이란 건 기업이 고객이자 국민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시장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00억원 매출을 했다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떨어지면 반대로 서비스를 깊고 넓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메트로경제가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를 만났다. 지난 4월 코레일유통 대표로 취임한 그는 대기업과 벤처기업,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운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전문가로 꼽힌다.

이곳저곳 겪어본 김 대표지만 고객이 자 국민, 국민이자 고객을 맞게 된 후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코레일유통의 상품은 ‘이동의 경험’이다. 수도 서울부터 쇠락한 오지까지 전국을 잇는 기간산업인 철도를 둘러싸고 오가는 것이 코레일유통의 상품이다.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은 코레일유통의 적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철도 이용자의 60%는 KTX를 이용하고, KTX의 정시율은 99.8%에 이른다. 고객은 편리해졌지만, 철도역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진 것이 코레일유통에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셈이다.

“KTX 정시율이 높다는 건 고객이 이동하는 시간 외에는 철도역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돼요. 실제로 출발 시간에 근접하게 와서 몇 분 머물지



기술발전에 KTX 정시율 99.8% 고객, 역에 머무는 5분 가져와야 쏘카·토스 등과 업무협약 맺어

공간 제약 넘어 새문화 확장 위해 매주 현장에서 직원들과 커피챗 폰 번호 공개하고 SNS로 ‘소통’



않고 떠나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5분, 10분을 우리가 가져와야 해요. 그만큼 제대로 된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고객이 투자한 5분을 또다른 이동과 서비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느냐가 우리 비즈니스의 숙제 아닐까요.”

철도역사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인해 그동안 회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큰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이고, 또다른 하나

는 고속열차(KTX)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모빌리티 혁명도 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김 대표가 생각한 코레일유통의 무기는 바로 ‘연결’과 ‘확장’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업무에 대한 정의를 바꿨다. 유통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그것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된 코레일유통은 지난 5월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철도역을 다른 교통수단까지 연계하는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토스 등 ICT 기술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됐다.

“수많은 나라가 도시 소멸을 이야기 하면서도 철도 역을 폐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연결됐다’는 인식이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은 무겁고 중요하죠. 하나하나의 메시지들에 무게가 있어요. 대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대부분 해소

할 수 있어요.”

공간 제약을 넘어서고 새로운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김 대표는 회사 문화에 신경쓰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 자신을 최고청취책임자(CLO: Chief Listening Officer)라고 칭했다. 그간 솔한 경험에서 체득했다. 매주 전국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커피챗을 하고, 매월 ‘월간CLO’를 제목으로 편지를 쓴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뒤 수시로 문자메시지, SNS로 직접 소통한다. 번호를 공개한 후 생일을 축하해달라는 문자부터 남에게 터놓기 어려운 고민까지 직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코레일유통은 대한민국 철도 플랫폼의 공간 운영자입니다. 회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감각, 미래 지향성, 국민과의 신뢰 속에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세가지는 다른 기업, 특히 민간에선 찾기 어려운 강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 어쩌면 과거의 플랫폼에 스스로를 묶어 놓은 듯 합니다. 강점 속에 감춰진 약점입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7년만에 깜짝등장... 정유경 ‘아트 마케팅’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

‘신세계 × 프리즈’ VIP 파티 참석 아트슈머 확보일환... 아트페어 후원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이 7년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 6일 미술계 최대 행사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의 개막 날 열린 ‘신세계 × 프리즈’ 파티에 참석했다.

해당 ‘신세계 × 프리즈 VIP’ 파티는 신세계백화점이 분더샵 갤러리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현장에는 약 500여 명의 VIP 인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정유경 총괄사장,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신세계 그룹의 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그 외에도 방송인, 연예인, 패션브랜드 대표 등 셀럽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업계내 ‘은둔형 경영자’로 불리는 정 총괄 사장의 방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 총괄 사장은 2016년 신세계 대구점 개점 행사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정 총괄 사장이 이번 ‘신세계 × 프리즈 VIP 파티’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작품명 제프 쿤스, ‘세이크리드 하트(sacred heart)’

특징 신세계가 2011년 300억원을 들여 구매,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 정원에 설치

아트페어(프리즈)에 후원사로 참여하는 건 신세계가 업계 최초다. 여기에 분더샵 청담이 프리즈 서울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소비를 통해 문화적 만족감을 얻는 아트슈머들을 확보하기 위한 신세계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아트슈머들이 MZ 세대 중심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미술품 거래액은 최초 1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미술 시장 주요 구매자로 꼽히는 MZ 세대의 구입 경로는 갤러리, 아트페어로 조사

됐다. 신세계도 이같은 예술 열풍에 따라 아트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는 이번 프리즈의 후원을 계기로 미디어 파사드, NFT 등 아트에 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간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벌인 만큼, 이번 프리즈 서울 행사를 위해 신세계 갤러리를 백화점 외부에 오픈했다”며 “이번 정유경 총괄 사장의 행사 방문은 첫 외부 갤러리 개관에 의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韓 주도 ‘뇌-컴퓨터 연결’ 국제표준 개발

인터페이스 데이터 형식 최종승인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CI 국제표준화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BCI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BCI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이 없어 데이터 공유, 통합 및 분석,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 간 호환성 문제로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유토이미지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데이터 표준을 선점해 향후 관련 제품 개발과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이 설립됐고, 우리나라가 작업반 의장을 맡을 예정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전망이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